

# 한국고고학의 반세기 : 구석기시대에 대한 토론요지

한 창 균 (단국대)

해방5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구석기시대의 연구성과와 그 문제점을 되짚어보려는 노력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고고학의 반세기를 되돌아보면서 정영화 교수가 지적한 여러 문제점은 한국 구석기학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영화교수의 발표 내용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구석기 분야의 연구성과 그 자체에 대해서 미흡하게 다루었고 지나치게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다음에서 정영화교수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구석기시대 연구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보고자 한다.

1) 현재 프랑스와 같은 외국의 고고학계에서는 중기 구석기시대의 상한을 20만년전 이전으로 올려잡으려는 추세가 강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한국의 구석기시대 연구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2) 근래에 들어와 북한에서는 검은모루 동굴유적을 100만년전으로 올려보고 있으며 만달사람의 뼈가 나온 만달리 동굴유적의 지층을 중석기시대로 다루고 있다. 북한에서 이렇게 두 유적의 시기 설정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3) 전곡리유적의 시기설정에 대하여 여러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이선복교수는 전곡리유적보다 상류에 위치한 지역에서 얻은 시료의 연대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곡리 유적의 연대를 정영화 교수의 견해보다 훨씬 낮추어 보고있다. 발굴장소에서 채집한 시료가 아니라도 유적주변에서 일어난 퇴적지층의 비교를 통하여 발굴유적의 연대를 추론하는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또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발굴유적에서 채집한 시료가 아니라는 이유와 연대측정방법 자체가 지니는 한계만을 지적하여 이선복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현재 고고학계에서 응용하고 있는 연대측정법 자체가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이선복교수가 채취한 시료 자체의 연대측정 결과는 약 45,000BP로 나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연대측정방법의 문제보다는 시료자체가 안고있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4) 병산리 유적에 대하여 정영화교수는 “지질학적으로 중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확증도 없고 토양의 썰기구조 만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런 지적은 병산리 유적의 퇴적 성격을 갱신세 후기, 곧 중기 구석기시대 이후로 보면서, 이와 같은 퇴적상의 증거가 전곡리 유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발굴 보고서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병산리 유적 발굴보고서에는 이 유적의 형성시기가 중기 구석기시대 이후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유적의 지형과 지세를 비롯하여 퇴적물을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정영화 교수가 제기한 문제점의 지적에는 과학적인 비판의 논리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연대측정 하는데 필요한 숫조각 한점 나오지 않은 곳에서 이른바 “과학적인 층위의 편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5) 구석기 유적에서 나오는 뼈연모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실체현미경이나 전자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연구를 하고있다.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뼈연모에 대한 많은 점이 밝혀지고 있으며, 그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우리나라의 몇몇 구석기 유적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지난날 서구유럽의 고고학계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뼈연모의 평가 문제에 집착하여 현재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 경향을 주목하지 않거나 그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